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

The Influence of Married Couples' Argument-Communication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 Analyses at the Dyadic Level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권윤아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교수 · 연구원 김득성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Yoon A Kw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Deuk Sung Kim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Using a sample of 107 married coupl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self-reported argument-communication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 Wives used more criticism, contempt, and self-assertion during marital arguments than husbands. There were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defensiveness, stonewalling, and active listening. (b) Multilevel analyses indicated that marital satisfaction was predicted by the person's own level of self-assertion and stonewalling(i.e., actor effects) and by his or her spouse's level of stonewalling(i.e., partner effect). No other significant actor and partner effects were found.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sizes of effects. (c) A cluster analysis of both spouses'

Corresponding Author : Yoon A Kw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Kumjung-ku, Busan, 609-735, Korea Tel: +82-51-510-3342 Fax: +82-51-513-7976 E-mail: e-ky@hanmail.net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mmunication behaviors during marital arguments identified four distinct groups of married couples. : mutual constructive, husband constructive-wife destructive, husband destructive-wife constructive, and mutual destructive. Mutual constructive couples reported the best marital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 의사소통 행동(communication behaviors),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부부싸움(marital arguments)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부부는 신혼 초부터 욕구, 기대, 목표가 서로 맞지 않아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경미한 차이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부싸움의 형태로 표출된다. 본 연구는 싸움을 사람들 사이의 언어상의 갈등으로 보고(강학중, 유영주, 2003) 부부싸움을 “부부간의 상충되는 욕구, 가치, 목표로 인해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인 대립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2003년 한국갤럽이 기혼자 1,09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지난 한 해 동안 부부싸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해 평균 부부싸움 횟수는 5회였다(연합뉴스, 2003. 3. 4). 2003년 가정경영연구소가 기혼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이상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3. 12. 22).

부부싸움은 어느 부부에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피하고 표면적인 평화를 누리는 부부도 있다. 그런데 싸움을 회피하면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피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의 존재가 아니라 싸움의 방식이다. 싸움 방식에 따라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고 오해를 풀거나 싸우기 전보다 더 친밀해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Lamanna & Riedmann, 1991, p. 295; Metz & Epstein, 2002)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부부간의 애정이 감소하거나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Gottman, 1993; Sanford, 2003). 또한 오늘날에는 결혼 생활의 안정성보다 부부간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권정혜, 채규만, 1998) 결혼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호하고 결혼만족도를 유지시키는 부부싸움 방식이 특히 요구된다. 부부싸움은 부부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을 통해 진행된다. 부부싸움에서 어떤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 만족도를 유지시켜주거나 위협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서구에서는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부부간 갈등논의과정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많은 연구가 다양한 의사소통 행동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범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특정 의사소통 행동의 독특한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적었다(Halford, Hahlweg, & Dunne, 1990; Johnson, et al., 2005; Roberts & Krokoff, 1990). 부부교육 및 부부상담 현장에서 의사소통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 의사소통 행동이므로(Halford et al., 1990) 의사소통 행동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결혼관계에 가장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발견한 Gottman(1999, p. 41)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네 요인은 한국 부부의 결혼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화에 따라 의사소통 행동의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Halford et al., 1990; Rehman & Holtzworth-Munroe, 2007) 이 네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Gottman, 1994b, pp. 113, 288; Whelan, 2006)는 이 네 요인과 결혼만족도 간의 단순상관관계만 살펴봐왔기 때문에 이 네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어느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은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에 비해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정은, 이영호, 2000; Heyman, 2001). 부부가 싸울 때는 부정적 감정과 생리적 각성(arousal)이 동반되기 쉬운데 이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지기능의 경직과 역기능적 행동의 사용가능성을 높인다(Gottman & Levenson, 1988, p. 191). 그렇다면 부정적 감정과 생리적 각성을 완화시키고 문제에 대해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밝히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많은 부부상담가들은 이러한 의사소통 행동으로 자기주장과 적극적 경청을 제안한다. 그런데 부부싸움에서 자기주장과 적극적 경청이 실

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리고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자기주장과 적극적 경청에 관한 연구는 부부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으로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과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으로서 자기주장과 적극적 경청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싸움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의사소통 행동과 가장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행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Gottman의 연구(Gottman, 1999, p. 41; Gottman & Levenson, 1999)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비난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편이 아내보다 냉담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김영희, 정선영, 2007; 이선미, 전귀연, 2005; 이종선, 권정혜, 2002)에서 결혼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부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이다. 부부싸움은 부부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맥락 내에서 일어나며 각 배우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은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를 쌍으로 모집해서 자신의 의사소통 행동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actor effect)-과 상대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상대방효과(partner effect)-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몇몇 선행연구(Christensen & Heavy, 1990; Gottman, 1994b, p. 288; Gottman, Coan, Carrere, & Swanson, 1998; Gottman & Krokoff, 1989)에서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대한 의사소통 행동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한편 부부는 부부싸움에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 행동들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각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 쌍이 사용하는 여러 의사소통 행동들의 연합 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싸움에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보다 자기주장과 적극적 경청을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쌍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의 연합이 비슷한 부부끼리 분류하여 유형화하고 부부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라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자신과 상대배우자가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부부쌍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에 따라 부부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부부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부간 갈등논의행동에 관한 연구

결혼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 서구의 부부 상호작용 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영역은 갈등논의행동 즉, 부부간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다(Fincham, 2003; Gottman, 1994b, p. 18). 의사소통 행동이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하는 관찰가능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서 여기에는 말, 표정, 시선, 몸짓, 자세, 준언어(paralanguage) 등이 포함된다. 특히 행동주의 접근의 부부연구자들은 결혼생활에 불만이 많은 부부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실험실에서 부부가 의견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 10-15분간 논의할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Gottman & Krokoff, 1989). 이는 갈등에 대한 비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이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며 이혼까지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Koerner & Jacobson, 1994, p. 208).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Alberts & Driscoll, 1992; Gottman & Krokoff, 1989; Greeff & De Bruyne, 2000; Halford *et al.*, 1990;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Marchand & Hock, 2000; Roberts, 2000)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의 갈등논의행동이 유의하게 달랐다.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만족도로서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가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부보다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더 많이,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더 적게 사용하였다.

1)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과 결혼만족도

부부간 갈등논의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대부분의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들은 신체적 폭력을 제외하고 Gottman(1993, 1994a, pp. 68-97)이 제안한 네 가지 역기능

적 의사소통 행동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Young & Long, 2004, p.192). Gottman은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가 결혼관계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사용하는 것이 결혼관계에 특히 파괴적이라고 하였다(Gottman, 1999, p. 41). 비난이란 배우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개인의 성격이나 인간성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비난은 보통 '당신은 항상~'이나 '당신은 절대~'라는 말로 잘 시작되며 여러 가지 불만거리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서 잔소리하는 것도 비난이다. 경멸은 배우자보다 우위에 서서 배우자를 심리적으로 확대하거나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 경멸로는 모욕하기, 욕하기, 적대적인 유머나 놀림, 빈정거림 등이 있으며, 코웃음 치기, 멸시하는 눈빛 등의 얼굴 표정으로도 잘 전달된다. 방어란 공격받는다 느낄 때 공격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시도이다. 예를 들어 맞받아 공격하기, 결백을 주장하기, 푸념하기, 책임 부인하기, 변명하기, 자신의 입장만 되풀이해서 말하기 등이다. 마지막으로 냉담은 청자가 대화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고 철회하는 것이다. 즉, 배우자의 말을 따라가며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전혀 주지 않고 뻗뻗한 태도로 입을 다물고 눈길을 주지 않거나 대화하고 있던 곳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다(Gottman, 1994a, pp. 68-97; Gottman, 1999, pp. 41-47). 본 연구는 Gottman이 제시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개념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선행연구(Gottman, 1993; Gottman, 1994b, pp. 113, 288; Gottman *et al.*, 1998; Whelan, 2006)에서 이 네 요인은 낮은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있었으며 이혼을 높게 예측하였다. Gottman은 네 요인 중 경멸이 가장 역기능적이라고 보았다(Gottman, 1999, p. 47). 그런데 선행연구마다 결혼만족도와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이 조금씩 달랐다. Whelan(2006)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경멸이었고, Gottman(1994b, p. 113)의 연구에서는 냉담이었다. 그리고 Gottman은 이 네 요인 간에 일종의 연쇄효과가 있어서 비난이 먼저 시작되고 비난에 익숙해지면 경멸이 시작되고 그러면 경멸은 방어를, 방어를 냉담을 차례대로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Gottman, 1993; Gottman, 1994b, p. 415). 그리고 이 네 요인이 결혼관계에 하나씩 첨가될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였다(Gottman, 1994a, p. 97).

한편 선행연구(Gottman, 1999, p. 41; Gottman & Levenson, 1999)에서 비난과 냉담의 사용정도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 즉, 부부간 갈등논의과정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비난을, 남편이 아내보다 냉담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

다. 특히 냉담자의 85%가 남자였다(Gottman, 1994b, p. 141). Gottman은 남성의 경우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생리적 각성이 잘 일어나며 이것을 여성보다 더 많이 자각하고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성보다 냉담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았다(Gottman, 1994b, pp. 107-108; Levenson, Carstensen, & Gottman, 1994). 그리고 남성의 냉담은 여성을 매우 화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여성은 냉담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냉담은 결혼관계에 매우 나쁜 징조라고 하였다(Gottman, 1999, p. 47). Whelan(2006)의 연구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비난과 경멸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고 냉담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자기주장, 적극적 경청과 결혼만족도

최근 들어 부부갈등 연구자들은 건설적인 갈등관리방법으로서 문제해결보다 문제에 대한 대화를 더 강조한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부부의 경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의 관점을 교환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기 때문이다(Gottman, 1999, pp. 96-97).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길 때 문제를 급히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의 생각을 잘 들어보려고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먼저 문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논의한 후에 문제해결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논의는 명확한 문제파악과 문제해결의 토대가 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좋은 대화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유대감과 우정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Markman, Stanley, & Blumberg, 2004, pp. 143-172).

많은 부부교육가 및 부부상담자는 부부간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고 문제논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기주장과 적극적 경청을 추천한다. 이는 화자-청자 기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자기주장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Willmot과 Hocker(2001, p. 135)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축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정은과 이영호(2000)는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폭넓게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임승규(2000)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느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자기주장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 터놓고 말하기(leveling)가 있다(Arellano & Markman, 1995; Gottman, Notarius, Gonso, & Markman, 1976, p. 27-35).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장을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키는 기술로 정의하였다. 자기주장은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의사소통 과정(process)이 시작되게 하며

(Gottman *et al.*, 1976, p. 29) 자신의 감정과 희망을 분명히 말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과 자신감을 높여 준다 (Olson, DeFrain, & Olson, 1999, p. 134). 선행연구 (Arellano & Markman, 1995; Smolen, Spiegel, Bakker-Rab dau, Bakker, & Martin, 1985) 결과, 부부가 갈등 중에 자기주장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낮은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있었다.

적극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서 가로막지 않고 주의 깊게 들으면서 방금 들었던 말을 그대로 혹은 요약해서 다시 말하기(restating)(Olson *et al.*, 1999, p. 133)나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료화하기와 피드백 주기도 포함된다(McKay, Davis, & Fanning, 1999, p. 36). 명료화하기란 화자의 말이 분명히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다. 피드백 주기는 화자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한 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이다. 즉, 적극적 경청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수동적으로 메시지를 흡수하기보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갈등 중에 적극적 경청을 사용하면 분노가 상승되는 것을 막고 오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McKay *et al.*, 1999, pp. 36-39). 그리고 화자는 청자가 자신이 한 말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경청을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내용을 바꾸어 말하기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 명료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피드백 주기는 개념 상 자기주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적극적 경청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부간 갈등논의과정에서 사용하는 적극적 경청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Gottman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갈등논의 중에 적극적 경청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 경청이 결혼행복을 예측하지 않았다. Gottman(1999, pp. 9-10)의 질적 분석에서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부부라도 공격받을 때는 바꾸어 말하기나 배우자의 감정 인정을 거의 하지 않으며 비슷한 수준의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Gottman은 공격받는 느낌이 들 때에는 적극적 경청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적극적 경청을 일반적 정의와 다르게, 한 배우자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배우자가 관심, 애정, 유머, 인정(validation) 등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기(Gottman *et al.*, 1998) 때문일 수 있다. 한편, Cornelius와 Alessi(2007)의 연구와 Hahlweg, Schindler, Revenstorf와 Brengelmann(1984)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경청 훈련 후 부부가 갈등논의과정에서 적극적 경청을 사용하였을 때 긍정적 상호작용은 변화가 없고 부정적 상호작용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2. 부부간 갈등논의행동에 따른 부부유형과 결혼만족도

남편과 아내는 갈등논의과정에서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과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일정한 비율로 교환한다. Gottman(1994b, pp. 94-100; 1999, pp. 38-41)은 부부가 갈등논의 중에 사용하는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과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의 비율에 따라 부부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갈등논의 중에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갈등조절 능력이 있는 부부(regulated couple)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갈등조절능력이 없는 부부(nonregulated couple)로 명명하였다. 연구결과, 갈등조절능력이 있는 부부가 갈등조절능력이 없는 부부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Ridley, Welhelm과 Surra(2001)는 부부간 갈등논의과정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에 따라 부부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문제해결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부부, 남편과 아내 모두 공격과 철회를 많이 사용하는 부부, 남편은 문제해결행동을 아내의 공격과 철회를 많이 사용하는 부부 그리고 남편은 공격과 철회를 아내의 문제해결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부부였다. 이 중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문제해결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부부가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남편과 아내 모두 공격과 철회를 많이 사용하는 부부가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정은과 이영호(2000)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부쌍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의 연합이 결혼만족도와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부부가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더라도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훨씬 더 풍부하게 사용할 때 좋은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부산시 6개구(금정구, 동래구, 북구, 서구, 연제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결혼 20년차 이하의 초혼 부부이다. 2007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계층이 편중되지 않도록 거주지 계층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각 지역에 위치한 가정, 회사, 교회, 성당,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를 통해서 유의표집하였다. 총 380쌍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게 기재되었거나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107쌍의 부부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변인 | 구분 | N = 107쌍 | |
|-------|-------------|------------|------------|
| | | 남편 N(%) | 아내 N(%) |
| 연령 | 25-30세 | 4(3.7) | 6(5.6) |
| | 31-40세 | 48(44.9) | 64(59.8) |
| | 41-50세 | 55(51.4) | 37(34.6) |
| 교육 수준 | 고졸 이하 | 28(26.2) | 38(35.5) |
| | 대졸 | 65(60.8) | 63(58.9) |
| | 대학원 졸 | 14(13.1) | 6(5.6) |
| 직업 | 무직·주부 | 1(0.9) | 60(56.1) |
| | 노무직·생산기능직 | 21(19.6) | 4(3.7) |
| | 기술직·판매/서비스직 | 8(7.5) | 13(12.2) |
| | 소규모자영업 | 18(16.8) | 8(7.5) |
| | 사무직·공무원 | 23(21.5) | 7(6.5) |
| | 관리직·전문기술직 | 28(26.2) | 13(12.2) |
| | 고위전문직 | 8(7.5) | 2(1.9) |
| 수입 | 소득없음 | 1(0.9) | 55(51.4) |
| | 100만원 이하 | 3(2.8) | 19(17.8) |
| | 101-200만원 | 13(12.2) | 16(15.0) |
| | 201-300만원 | 40(37.4) | 6(5.6) |
| | 301-400만원 | 26(24.3) | 9(8.4) |
| | 401만원 이상 | 24(22.4) | 2(1.8) |
| 자녀수 | 1명 | 25(23.4) | |
| | 2명 | 68(63.6) | |
| | 3명 이상 | 14(13.1) | |
| 결혼 기간 | 1-5년 | 14(13.1) | |
| | 6-10년 | 29(27.1) | |
| | 11-15년 | 43(40.2) | |
| | 16-20년 | 21(19.6) | |

주. 아내의 응답을 토대로 분석함.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수가 적은 이유는 남편용 설문지의 경우 남편이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거나 아내용 설문지와 응답 필체가 동일한 것이 매우 많아서 이를 모두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내의 응답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남편과 아내의 응답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아내의 응답이 남편보다 더 성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편 연령은 41-50세(51.4%)가 가장 많았고 아내 연령은 31-40세(59.8%)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남편과 아내 모두 대졸(각각 60.8%, 58.9%)이 가장 많았고 직업은 남편이 관리직·전문기술직(26.2%)이, 아내는 무직·주부(56.1%)가 가장 많았다. 남편 수입은 201-300만원(37.4%)이, 아내 수입은 소득없음(51.4%)이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2명(63.6%)이 가장 많았고 결혼기간은 11-15년(40.2%)이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의사소통 행동 척도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측정하기 위해 권윤아와 김득

성(2008)의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난 5문항(예, '당신은 항상, 또 문제'라는 식으로 말한다), 경멸 5문항(예, 가시 돌친 욕설과 모욕을 주는 말을 한다), 방어 5문항(예, 아내가 하는 말에 놀라서 필적 뛰면서 전부 부인한다¹⁾), 냉담 4문항(예, '됐으니까 그만 말하라'고 한 후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자기주장과 적극적 경청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송시내(1999)의 의사소통 질문지에서 일부 문항을 선정하여 모두 긍정문항으로 된 척도로 새롭게 구성하였다²⁾. 이 척도에 대해 varimax 회전을 사용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장 3문항(예, 나의 입장이나 생각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한다)과 적극적 경청 4문항(예, 아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내가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물어 본다)의 두 요인이 고유치 1이상으로 추출되었다. 두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72.9%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70이상, 공통분(communality)도 모두 .60이상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각 하위척도의 응답범주는 지난 1년 동안 부부싸움을 할 때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배우자에게 했는지에 대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형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싸움에서 비난, 경멸, 방어, 냉담, 자기주장 및 적극적 경청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하위척도의 점수비교를 위해 냉담, 자기주장 및 적극적 경청의 점수범위를 5-25점이 되도록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 각각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 α 값은 비난이 .83과 .88, 경멸이 .81과 .90, 방어가 .85와 .86, 냉담이 .87과 .84, 자기주장이 .86과 .85 그리고 적극적 경청이 .86과 .83으로 양호하였다.

2)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Schumm *et al.*의 KMSS에 정현숙(1997)이 한 문항을 첨가하여 구성한 RKMSS(Revised 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정현숙(1997)의 연구에서 RKMSS는 KMSS보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결혼만족도 측정에 매우 타당성이 있는 척도임이 증명되었다.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로서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부모로서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4문항이며, 응답범주는 매우 불만족(1점)에서 대단히 만족(7점)의 7점 리커트 형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1) 남편용 설문지 형태로 문항을 제시함.

2) 송시내(1999)의 의사소통 질문지에서 자기주장에 관한 10, 16, 25, 36번 문항을 세 문항으로 수정하고, 적극적 경청에 관한 20, 23, 28, 34번 문항을 수정하였다.

연구에서 결혼만족도 척도의 내적일치도 α 값은 남편과 아내 각각 .94와 .91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척도의 내적일치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검증을 실시하였다³⁾.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신과 상대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⁴⁾. 부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독특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종속변인에서 부부자료가 서로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자료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전통적인 통계기법-예,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을 사용할 수 없고 부부자료의 비독립성(nonindependence)을 고려한 통계기법을 사용해야 한다(Cook & Kenny, 2005). 만약 부부자료의 비독립성이 검증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남편자료와 아내자료를 혼합하여 개인 단위로 분석한다면 유의성 검증에서 제 1종 오류와 제 2종 오류가 생길 수 있다(Kashy & Snyder, 1995). 다층모형은 부부자료와 같이 동일집단 내 구성원 간 유사성이 있는 위계 자료(hierarchical data)나 내재적 자료(nested data)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학문분야에 따라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혼합모형(Mixed Models), 무선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진다(홍세희, 2007, pp. 31-38). 부부쌍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을 기준으로 부부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 및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의 성차

성별에 따라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싸움에서 자기주장(남편 $M = 15.55$; 아내 $M = 16.67$)과 적극적 경청($M = 14.49$; $M =$

<표 2>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의 평균 (표준편차)과 *paired t*값

| 변인 | 남편 | 아내 | \bar{d} | <i>paired t</i> |
|--------|-------------|-------------|-----------|-----------------|
| | $M(SD)$ | $M(SD)$ | | |
| 비난 | 11.85(3.74) | 12.88(4.19) | -1.03 | -2.03* |
| 경멸 | 8.80(3.23) | 9.68(4.09) | -.88 | -1.96* |
| 방어 | 9.20(3.55) | 9.25(3.34) | -.06 | -0.12 |
| 냉담 | 11.23(4.26) | 10.67(4.20) | .56 | 1.02 |
| 자기주장 | 15.55(4.21) | 16.67(3.88) | -1.12 | -1.98* |
| 적극적 경청 | 14.49(4.28) | 15.44(3.94) | -.96 | -1.74 |
| 결혼만족도 | 21.93(3.88) | 19.97(4.34) | 1.95 | 4.67*** |

$N = 107$ 쌍

$d =$ 남편 점수 - 아내 점수

* $p < .05$. *** $p < .001$.

15.44)을 보통 정도로 사용하였다.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은 보통 보다 적게 사용하였는데 네 변인 중에서는 비난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M = 11.85$; $M = 12.88$) 그 다음이 냉담이었다($M = 11.23$; $M = 10.67$). 그리고 남편은 경멸($M = 8.80$), 아내는 방어($M = 9.25$)를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한편, 성별에 따라 비난(*paired t* = -2.03, $p < .05$), 경멸(*paired t* = -1.96, $p < .05$) 및 자기주장(*paired t* = -1.98,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내가 남편보다 부부싸움에서 비난, 경멸 및 자기주장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방어, 냉담 및 적극적 경청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결혼만족도는 남편($M = 21.93$)이 아내($M = 19.97$)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paired t* = 4.67, $p < .001$). 이는 선행연구(김영희, 정선영, 2007; 이선미, 전귀연, 2005; 이종선, 권정혜, 2002)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결혼만족도에 대한 성별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2.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먼저 연구변인들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 간 다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고 종속변인에서 부부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이 $r = .66$ 이었다. 남편과 아내 자료에 대해 각각 다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 *Tolerance*값이 남편이 .45 - .70, 아내가 .48 - .71, 분산팽창요인 *VIF*값이 남편이 1.43 - 2.24, 아내가 1.41 - 2.10이어서 다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한편,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간에 $r = .45$ 의

3) 부부자료를 사용할 때 연구변인에서 부부간 평균차이를 검증하려면 *paired t*-검증을 하면 된다(Kashy & Snyder, 1995).

4) 부부자료의 코딩방법은 SAS 혹은 HLM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부자료의 다층분석방법은 Campbell과 Kashy(2002) 및 Kenny와 Cook(1999)의 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표 3〉 남편과 아내의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N = 107쌍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남편 비난 | - | | | | | | | | | | | | |
| 2 남편 경멸 | .66*** | - | | | | | | | | | | | |
| 3 남편 방어 | .52*** | .58*** | - | | | | | | | | | | |
| 4 남편 냉담 | .36*** | .44*** | .57*** | - | | | | | | | | | |
| 5 남편 자기주장 | -.06 | -.16 | -.15 | -.04 | - | | | | | | | | |
| 6 남편 적극적 경청 | -.26** | -.38*** | -.24** | -.12 | .54*** | - | | | | | | | |
| 7 아내 비난 | .13 | .11 | .16 | .10 | -.09 | -.01 | - | | | | | | |
| 8 아내 경멸 | .11 | .22* | .19* | .21* | -.22* | -.08 | .52*** | - | | | | | |
| 9 아내 방어 | .16 | .13 | .02 | .07 | -.01 | .05 | .52*** | .55*** | - | | | | |
| 10 아내 냉담 | .30** | .29** | .11 | .09 | .02 | -.02 | .31*** | .42*** | .60*** | - | | | |
| 11 아내 자기주장 | -.12 | -.15 | -.02 | -.02 | -.05 | .07 | .07 | -.16 | -.06 | -.24** | - | | |
| 12 아내 적극적 경청 | -.11 | -.25** | -.10 | -.23* | -.01 | .04 | -.10 | -.47*** | -.30** | -.40*** | .51*** | - | |
| 13 남편 결혼만족도 | -.41*** | -.34*** | -.35*** | -.35*** | .26** | .28** | -.04 | -.16 | -.13 | -.26** | .16 | .15 | - |
| 14 아내 결혼만족도 | -.28** | -.34*** | -.28** | -.31*** | .16 | .20* | -.25** | -.39*** | -.25** | -.32*** | .23* | .37*** | .45*** |

*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부부자료의 비독립성을 나타낸다(Cook & Kenny, 2005). 따라서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때 다층분석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자신과 상대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행동 점수를 모두 전체평균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였다. 전체평균중심화란 전체평균이 0이 되도록 원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빼는 것이다(Curran, 2007, p. 2-21). 이는 회귀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할 때 잘 생기는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항 간의 다공선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Cook & Kenny, 2005). 그리고 전체평균중심화한 의사소통 행동들과 통제변인으로 성별(남편 = 1, 아내 = 0)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층분석을 실

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제한된 최대우도법(REML)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부자료에 대한 다층모형은 일반적인 최소제곱(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모형과 다르게 각 독립변인마다 두 개의 계수를 동시에 추정한다(Rholes, Simpson, & Friedman, 2006; Svavarsdottir & Rayens, 2005). 즉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배우자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 관한 계수이다(Cook & Kenny, 2005; Kashy & Snyder, 1995; Kenny & Cook, 1999). 〈표 4〉를 살펴보면 다른 의사소통 행동들과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주장과 냉담의 자기효과(각 $B = .25, -.22, p < .05$)와 냉담의 상대방효과($B = -.21, p < .05$)만 유의하였다. 즉 부부싸움에서 자기주장을 사용하고 냉담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상대배우자가 냉담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자신의 자기주장과 냉담 및 상대배우자의 냉담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편과 아내 간 결혼만족도의 부분 집단내상관(partial intraclass correlation)이 .30이었다. 이는 모든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부부의 결혼만족도간 상관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라 자기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남편의 의사소통 행동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아내의 의사소통 행동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다르다는 뜻이다. 성별에 따라 상대방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남편의 의사소통 행동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아내의 의사소통 행동이 남편

〈표 4〉 결혼만족도에 대한 의사소통 행동의 다층모형

N = 107쌍

| 독립변인(교정효과) | | B | SE | t |
|------------|-----|-------|------|----------|
| 비난 | 자기 | -.16 | .08 | -1.92 |
| | 상대방 | .02 | .08 | .21 |
| 경멸 | 자기 | -.06 | .10 | -.57 |
| | 상대방 | -.01 | .10 | -.11 |
| 방어 | 자기 | -.03 | .10 | -.25 |
| | 상대방 | -.06 | .10 | -.55 |
| 냉담 | 자기 | -.22 | .09 | -2.35* |
| | 상대방 | -.21 | .09 | -2.21* |
| 자기주장 | 자기 | .25 | .12 | 2.01* |
| | 상대방 | .16 | .12 | 1.28 |
| 적극적경청 | 자기 | .15 | .10 | 1.55 |
| | 상대방 | .03 | .10 | .30 |
| 성별 | 자기 | 1.90 | .44 | 4.35*** |
| 절편 | | 22.23 | 1.25 | 17.83*** |

B = 비표준화 계수

* $p < .05$. *** $p < .001$.

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다르다는 뜻이다. 먼저 각 의사소통 행동 별로 '자기 의사소통 행동×성별'과 '상대방 의사소통 행동×성별'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표 4>의 다층모형에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총 여섯 개의 다층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3.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에 따른 부부 유형과 결혼만족도

부부쌍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에 따라 부부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분석 방법은 비연결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 수를 스무 개로 줄인 후에 Ward의 최소분산방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 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의 평균은 <표 5>와 같다. 군집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LSD 사후검증을 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군집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남편 $F = 4.94, p < .01 \sim F = 44.96, p < .001$; 아내 $F = 5.14, p < .01 \sim F = 34.61, p < .001$). 군집의 특성을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각 군집 별로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의 표준화 평균을 산출하고 이것을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을 기초로 하여 부부싸움에서 자기

주장과 적극적 경청을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배우자를 건설형, 그 반대의 경우를 파괴형이라고 할 때 각 군집을 상호건설형, 남편건설-아내파괴형, 남편파괴-아내건설형 및 상호파괴형으로 명명하여 유형화할 수 있었다. 각 부부유형의 표본 수는 남편건설-아내파괴형이 31쌍(29%), 상호건설형이 28쌍(26%), 남편파괴-아내건설형이 26쌍(24%), 상호파괴형이 22쌍(21%)으로 비슷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남편이 건설형이라도 아내가 파괴형일 때보다 건설형일 때 부부싸움에서 비난과 경멸을 유의하게 더 적게 사용하였다. 아내가 건설형이라도 남편이 파괴형일 때보다 건설형일 때 부부싸움에서 냉담을 유의하게 더 적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파괴형인 두 유형 간에는 남편의 의사소통 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내가 파괴형이라도 남편이 건설형일 때보다 파괴형일 때 부부싸움에서 적극적 경청을 유의하게 더 적게 사용하고 특히 경멸을 매우 많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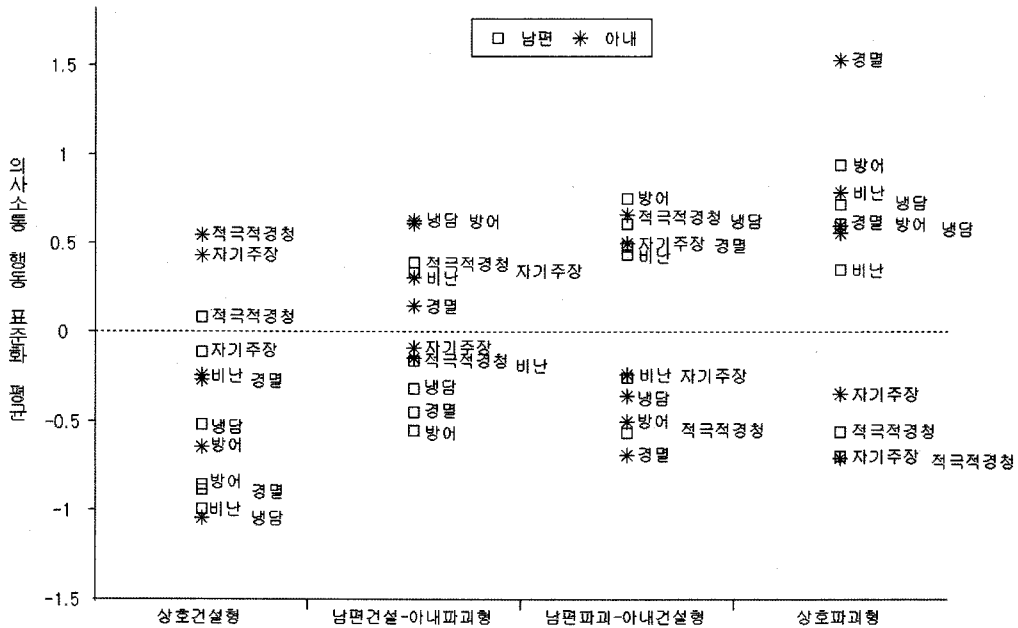
부부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그림 2>에 있다. 부부유형에 따라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남편 $F = 4.63, p < .01$; 아내 $F = 13.43, p < .001$). 사후검증 결과,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상호건설형($M = 23.86$), 남편건설-아내파괴형($M = 21.97$), 남편파괴-아내건설형($M = 21.39$), 상호파괴형($M = 20.05$) 순으로 적었다. 그리고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상호건설형과 남편파괴-아내건설형 간과 상호건설형과 상호파괴형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상호건설형($M = 22.71$), 남편파괴-아내건설형($M = 20.39$)과

<표 5> 부부유형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평균과 F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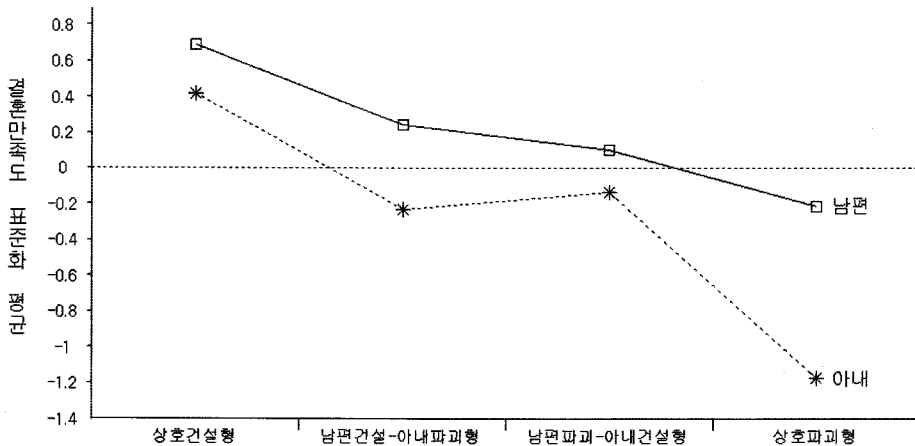
N = 107쌍

| 부부유형 의사소통 행동 및 결혼만족도 | 상호건설형 N = 28쌍 | 남편건설- 아내파괴형 N = 31쌍 | 남편파괴- 아내건설형 N = 26쌍 | 상호파괴형 N = 22쌍 | F |
|----------------------------|------------------|---------------------------|---------------------------|------------------|----------|
| | M | M | M | M | |
| 남편 비난 | 8.39 c | 11.71 b | 14.12 a | 13.77 a | 20.31*** |
| 남편 경멸 | 5.96 c | 7.58 b | 11.04 a | 11.50 a | 35.66*** |
| 남편 방어 | 6.29 b | 7.32 b | 11.81 a | 12.46 a | 44.96*** |
| 남편 냉담 | 8.75 b | 9.60 b | 13.51 a | 13.98 a | 14.01*** |
| 남편 자기주장 | 15.66 ab | 17.47 a | 15.06 bc | 13.26 c | 4.94** |
| 남편 적극적 경청 | 15.31 a | 16.57 a | 12.64 b | 12.67 b | 6.64*** |
| 아내 비난 | 11.39 b | 13.58 a | 11.42 b | 15.50 a | 6.16*** |
| 아내 경멸 | 8.25 c | 9.77 b | 6.69 c | 14.91 a | 34.61*** |
| 아내 방어 | 7.00 b | 11.32 a | 7.50 b | 11.27 a | 20.64*** |
| 아내 냉담 | 6.52 c | 13.59 a | 9.42 b | 13.30 a | 34.51*** |
| 아내 자기주장 | 17.86 a | 15.75 b | 18.14 a | 14.70 b | 5.14** |
| 아내 적극적 경청 | 17.23 a | 14.36 b | 17.69 a | 12.05 c | 15.56*** |
| 남편 결혼만족도 | 23.86 a | 21.97 ab | 21.39 b | 20.05 b | 4.63** |
| 아내 결혼만족도 | 22.71 a | 19.97 b | 20.39 b | 16.00 c | 13.43*** |

a) b) c
p < .01, *p < .001.



〈그림 1〉 부부유형 별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 행동 표준화 평균



〈그림 2〉 부부유형 별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표준화 평균

남편건설-아내파괴형($M = 19.97$), 상호파괴형($M = 16.00$) 순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상호건설형 부부일 때 가장 높고 상호파괴형 부부일 때 가장 낮았다.

각 부부유형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 차이가 유의한지 추가로 알아보았다. *paired t*-검증 결과, 남편건설-아내파괴형 부부($paired\ t = 2.70, p < .01$)와 상호파괴형 부부($paired\ t = 3.43, p < .01$)만 아내가 남편보다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특히 상호파괴형 부부의 경우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남편에 비해 매우 낮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결혼 20년차 이하의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부부를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싸움에서 자기주장과 적극적 경청을 보통 정도로 사용하였다.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은

보통보다 적게 사용하였는데 네 번인 중에서 비난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이 냉담이었다. 한편, 아내가 남편보다 부부싸움에서 비난, 경멸 및 자기주장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적극적 경청, 방어 및 냉담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없었다.

둘째, 의사소통 행동 변인들과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기주장과 냉담 및 상대배우자의 냉담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싸움에서 자기주장을 사용하고 냉담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상대배우자가 부부싸움에서 냉담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자신의 의사소통 행동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성차는 없었다.

셋째, 부부싸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에 따라 상호건설형, 남편건설-아내파괴형, 남편파괴-아내건설형 및 상호파괴형의 네 가지 부부유형이 분류되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상호건설형, 남편건설-아내파괴형, 남편파괴-아내건설형, 상호파괴형 순으로 적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상호건설형과 남편파괴-아내건설형 간과 상호건설형과 상호파괴형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상호건설형, 남편파괴-아내건설형과 남편건설-아내파괴형, 상호파괴형 순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에서 적극적 경청을 보통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부부라도 바꾸어 말하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Gottman(1999, pp. 9-10)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이는 Gottman이 적극적 경청이 일어나는 상황을 상대배우자의 공격을 받을 때로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심, 애정, 유머, 인정 등 여러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적극적 경청의 지표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배우자로부터 공격받아 화가 나 있을 때에는 이러한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는 동안 공격만 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부싸움 중에도 배우자의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내용을 바꾸어 말하기하고 질문을 통해 명료화하는 부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난의 사용정도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Gottman, 1994, p. 41; Gottman & Levenson, 1999; Whelan, 2006)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보다 비난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표현을 더 많이 하도록 사회화되는 것과 (Galvin & Brommel, 1996, p. 275) 관계 문제를 더 많이 인

지하는 것과(Amato & Rogers, 1997; Miller, Yorgason, Sandberg, & White, 2003)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냉담의 사용정도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Whelan(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Gottman의 연구(Gottman, 1999, p. 41; Gottman & Levenson, 1999) 결과를 지지하지 않았다. Gottman은 대체로 남성이 냉담자이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갈등 중에 생리적 각성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Gottman, 1994b, pp. 107-108; Levenson *et al.*, 1994). 그렇다면 냉담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한국 아내가 부부싸움 중에 생리적 각성을 남편과 비슷하게 경험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권위 구조로 인해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한 결과로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해도 듣는 것이 없다고 느낀 결과일 수도 있다. 혹은 연구방법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ottman의 관찰연구와 달리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였다.

셋째, 부부싸움에서 자기주장을 사용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Arellano & Markman, 1995; Smolen *et al.*, 1985)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냉담은 결혼만족도에 대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즉 자신 혹은 상대배우자가 부부싸움에서 냉담을 사용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냉담은 의사소통의 차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로써 본 연구결과는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부부싸움에서 배우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을 분명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자기주장을 사용하고 냉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아내의 냉담이나 철회보다 남편의 냉담이나 철회의 해로운 효과에 주목하였으나(Roberts, 2000) 본 연구에서는 냉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내의 냉담도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내의 냉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비난의 자기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B = -.16$), $p = .056$ 으로 통계적 유의성에 매우 근접하였다. 본 연구표본이 더 컸더라면 이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부부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을 기준으로 분류한 네 가지 부부유형 중 두 유형이 상보적인 부부유형이었다. 이는 남편건설-아내파괴형과 남편파괴-아내건설형으로서 이 두 유형에 속하는 부부가 전체 부부의

5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상당수가 상대배우자의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은 상호건설형보다는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이정은, 이영호, 2000; Gottman, 1994b, pp. 94-100; Gottman, 1999, pp. 38-41; Ridley et al., 2001)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한 배우자만의 노력보다 부부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에 초점을 둔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긍정적·부정적 의사소통 행동을 세분화하여 이것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점이다. 둘째, 부부를 상호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관계로 보고 부부를 쌍으로 표집하여 부부 단위의 분석을 실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결혼만족도 예측을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 모두의 의사소통 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에 사용된 부부자료의 표본 수가 작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큰 표본으로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결혼 20년차 이하의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다른 부부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관찰이나 상대배우자의 지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기주장과 적극적 경청 외에도 부부싸움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돕는 다른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이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특히 자신과 상대배우자의 냉담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냉담의 원인과 냉담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결혼관계의 악화를 막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학중, 유영주(2003). 한국 도시부부의 부부싸움 및 부부싸움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61-84.

권윤아, 김득성(2008).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

개발 - Gottman의 네 기수(騎手)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6), 101-113.

- 권정혜, 채규만(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학술논문집*, 35-51.
- 김영희, 정선영(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동아일보(2003. 12. 22). 부부싸움 원인 연령대별로 차이.
- 송시내(1999).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연합뉴스(2003. 3. 4). 부부싸움 횟수는 1년에 5회.
- 이선미, 전귀연(2005).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가 인지한 갈등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패턴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7), 93-107.
- 이정은, 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종선, 권정혜(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13-330.
- 임승규(2000). 소아당뇨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자기주장훈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홍세희(2007). 위계적, 종단적 자료에 대한 다층모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년 고급 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III 자료.
- Alberts, J. K., & Driscoll, G.(1992). Containment versus escalation: The trajectory of couples' conversational complaints.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56, 394-412.
- Amato, P. R., & Rogers, S. J.(1997). A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problems and subsequen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12-624.
- Arellano, C. M., & Markman, H. J.(1995). The 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MADS):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conflict management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3), 319-334.
- Campbell, L., & Kashy, D. A.(2002). Estimating actor, partner, and interaction effects for dyadic data

- using PROC MIXED and HLM: A user-friendly guide. *Personal Relationships*, 9, 327-342.
- Christensen, A., & Heavey, C. L.(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73-81.
- Cook, W. L., & Kenny, D. A.(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ornelius, T., & Alessi, G.(2007).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components of communication training: Does the topic affect outco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608-620.
- Curran, P. J.(2007). SAS를 적용한 다층모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년 고급 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I 자료.
- Fincham, F. D.(2003). Marital conflict: Correlates, structure, and contex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1), 23-27.
- Galvin, K. M., & Brommel, B. J.(1990).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이재연, 최영희 (공역). 서울: 형설출판사. (1986년 원저발간)
- Gottman, J. M.(1993). A theory of marital dissolution and st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1), 57-75.
- Gottman, J. M.(1994a).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NY: Simon & Schuster.
- Gottman, J. M.(1994b).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ottman, J. M.(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Y: W.W. Norton.
- Gottman, J. M., Coan, J. A., Carrere, S., & Swanson, C.(1998). Predicting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from newlywed intera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5-22.
- Gottman, J. M., & Krokoff, L. J.(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Gottman, J. M., & Levenson, R. W.(1988).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marriage. In Noller, P., & Fitzpatrick, M.(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Gottman, J. M., & Levenson, R. W.(1999). Dysfunctional marital conflict: Women are being unfairly blamed.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1, 1-17.
- Gottman, J. M., Notarius, C., Gonso, J., & Markman, H. J.(1976). *A couple's guide to communication*.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Greff, A. P., & De Bruyne, T.(2000). Conflict management styl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Satisfaction*, 26(4), 321-334.
- Hahlweg, K., Schindler, L., Revenstorf, D., & Brengelmann, J. C.(1984). The Munich marital therapy study. In Hahlweg, K., & Jacobson, N. S.(Eds.). *Marital interaction: Analysis and modification*. NY: Guilford.
- Halford, W. K., Hahlweg, K., & Dunne, M.(1990). The cross-cultural consistency of marital communication associated with marit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487-500.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Heyman, R. E.(2001). Observation of couple conflicts: Clinical assessment applications, stubborn truths, and shaky found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13(1), 5-35.
- Johnson, M. D., Cohan, C. L., Davila, J., Lawrence, E., Rogge, R. D., Karney, B. R., et al.(2005). Problem-solving skills and affective expressions as predictor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1), 15-27.
- Kashy, D. A., & Snyder, D. K.(1995). Measurement and data analytic issues in couples research. *Psychological Assessment*, 7(3), 338-348.
- Kenny, D. A., & Cook, W.(1999). Partner effects in relationship research: Conceptual issues, analytic difficulties, and illustr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6, 433-448.

- Koerner, K., & Jacobson, N. S.(1994). Emotion and behavioral couple therapy. In Johnson, S. M., & Greenberg, L. S.(Eds.). *The heart of the matter: Perspectives on emotion in marital therapy*. NY: Brunner/Mazel.
- Lamanna, M. A., & Riedmann, A.(1991). *Marriages and families*(4th ed.). Belmont, CA: Wadsworth.
- Levenson, R., Carstensen, L., & Gottman, J. M.(1994). The influence of age and gender on affect, physiology and their interrelations: A study of long-term marri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6-68.
- Marchand, J, F., & Hock, E.(2000). Avoidance and attacking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among married couples: Relations to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9(2), 201-206.
- Markman, H. J., Stanley, S. M., & Blumberg, S. L.(2004). 행복한 결혼생활 만들기. 김득성, 김정옥, 김영희, 박충선, 송정아, 권윤아(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년 원저발간)
- McKay, M., Davis, M., & Fanning, P.(1999).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 임철일, 최정임(공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5년 원저발간)
- Metz, M. E., & Epstein, N.(2002). Assessing the role of relationship conflict in sexual dysfun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8, 139-164.
- Miller, R. B., Yorgason, J. B., Sandberg, J. G., & White, M. B.(2003). Problems that couples bring to therapy: A view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 395-407.
- Olson, D. H., Defrain, J., & Olson, A. K.(1999). *Building relationships: Developing skills for life*.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Inc.
- Rehman, U. S., & Holtzworth-Munroe, A.(2007).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 of marital communication behavior to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759-763.
- Rholes, W. S., Simpson, J. A., & Friedman, M.(2006). Avoidant attachment and the experience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275-285.
- Ridley, C. A., Wilhelm, M. S., & Surra, C. A.(2001). Married couples' conflict responses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4), 517-534.
- Roberts, L. J.(2000). Fire and ice in marital communication: Hostile and distancing behaviors as predictors of marit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693-707.
- Roberts, L. J., & Krokoff, L. J.(1990). A time-series analysis of withdrawal, hostility, and displeasure in satisfied and unsatisfied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95-105.
- Sanford, K.(2003). Problem-solving conversations in marriage: Does it matter what topics couples discuss? *Personal Relationships*, 10, 97-112.
- Smolen, R. C., Spiegel, D. A., Bakker-Rabdau, M. K., Bakker, C. B., & Martin, C.(1985). A situatio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specific assertiveness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7, 397-410.
- Svavarsdottir, E. K., & Rayens, M. K.(2005). Hardiness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asthm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0(4), 381-390.
- Whelan, S. E.(2006). *An exploration of marital inter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ttman's conflict resolution style and 'four horsemen', attachment theory, perception,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Melbourne.
- Wilmot, W. W., & Hocker, J. L.(2001). *Interpersonal conflict*(6th ed.). NY: McGraw-Hill.
- Young, M. E., & Long, L. L.(2004). 부부상담과 치료. 이정연(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8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08년 7월 31일

심사시작일 : 2008년 8월 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0월 14일